

Living the

LOTUS

Buddhism in Everyday Life

8
2017

VOL. 143

開祖隨感

말보다 태도

음식의 맛은 혀로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혀가 느끼는 것은 2할 정도이며 8할은 냄새와 색깔, 온도 등 전체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또 강연장에서도 청중이 강연의 내용을 듣는 것은 7퍼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오히려 강연자의 인품과 태도, 그리고 말하는 방법에 대한 인상이 훨씬 강하게 남는다고 하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믿을 수 있다」라고 신뢰감이 생기면 청중은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지만 웬지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강연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도 설법할 때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제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도달하는지를 안색을 살피면서 이야기합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말로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모두가 납득하는 얼굴이 됩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고 하지도 못한 것을 역설한다 해도 그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수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그 부분을 예리하게 듣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개조수감 9 p102-103

Living the Lotus Vol. 143 (2017年8月)

【発行】立正佼成会 国際伝道部
〒166-8537 東京都杉並区和田2-7-1
普門メディアセンター3F
Tel: 03-5341-1124
Fax: 03-5341-1224
E-mail: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編集責任者: 水谷庄宏
編集チーフ: 金尾江利子
校閲者: 成 淑姫
編集スタッフ: 国際伝道部スタッフ

입정교성회는 1938년 개조 니와노 닛교, 협조 나가스마묘코에 의해창립된 범화삼부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는 재가 불교 교단입니다.

가정,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살려서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는 니와노 니찌코 회장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는 물론, 각 계 사람들과 손을 잡고 국내외 여러 가지 평화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 -Buddhism in Everyday Life- (범화경에 살다- 생활속의 불교)라고 하는 타이틀에는 범화경의 가르침을 매일 생활 속에 살려서 흙탕물에 피는 연꽃처럼 인생을 풍요롭게 그리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라는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불교의 가르침을 인터넷을 통해 발신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용을 깨닫는다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 (庭野日鑽)



신앙은 「알아차림」이 계기가 된다

요즘 유행하는 뇌훈련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퀴즈를 한 문제 내겠습니다. 「공기·마음·연(緣)」이 세 가지에 공통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언뜻 보기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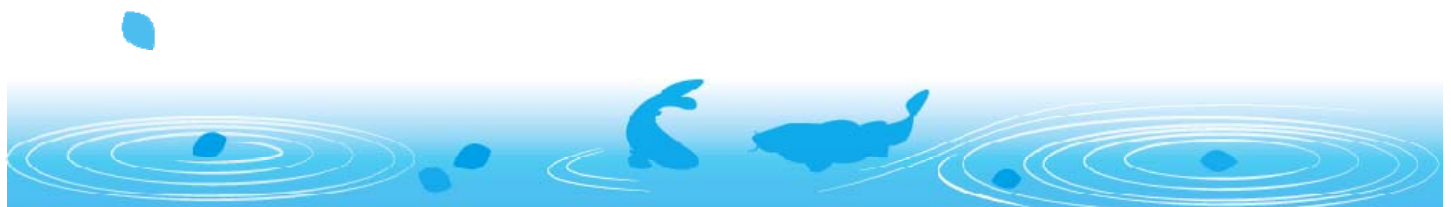
「실제로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

이것이 답입니다. 평소엔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살지만 그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마음과 연에서 구체적으로 답을 찾아본다면 예를 들어 부모의 은혜, 선조님의 덕, 가족의 배려, 친구의 염려 등도 금방 감사를 잊어버리기 쉬운,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화가 파울 클레가 「예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고 말했는데 종교와 신앙도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상태라든가 「생명」의 불가사의함·고마움 그리고 생명의 고귀함 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진짜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주는 것이 종교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 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순수해진다

법화경 여래수량품에 「항상 이에 머물러 법을 설함이니라」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항상 우리들 바로 곁에서 법을 설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내가 항상 이에 머물러 있어 모든 신통력으로 전도된 중생으로 하여금 비록 가깝게 있으나 보이지 않게 하노라」라고 이어집니다. 즉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된 중생이기 때문에」라는 경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치우친 시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부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순수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도 부처님의 설법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증거가 본교성지에 나오는 「신앙체험」이며, 본회 대성당과 각 도량에서 여러분이 발표하시는 「체험설법」이 아닐까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현실이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은 제각기 소중한 알아차림을 얻게 됩니다. -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탱을 받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고귀함을 맛보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와 가족의 마음을 통감하게 된다.....이것들이 모두,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로 바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해준 엄격한 현실조차도 「고맙다」고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곤경에 빠져 있는 상황은 변함없이 똑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을 깨달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걸려 있던 답답함이 내려가고 안심감으로 충만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작용과 부처님의 소리를 깨닫는 것은 말하자면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백중과 여름방학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많은 이 계절은 우리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에 생각을 기울여 보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佼成』 2017年8月号よ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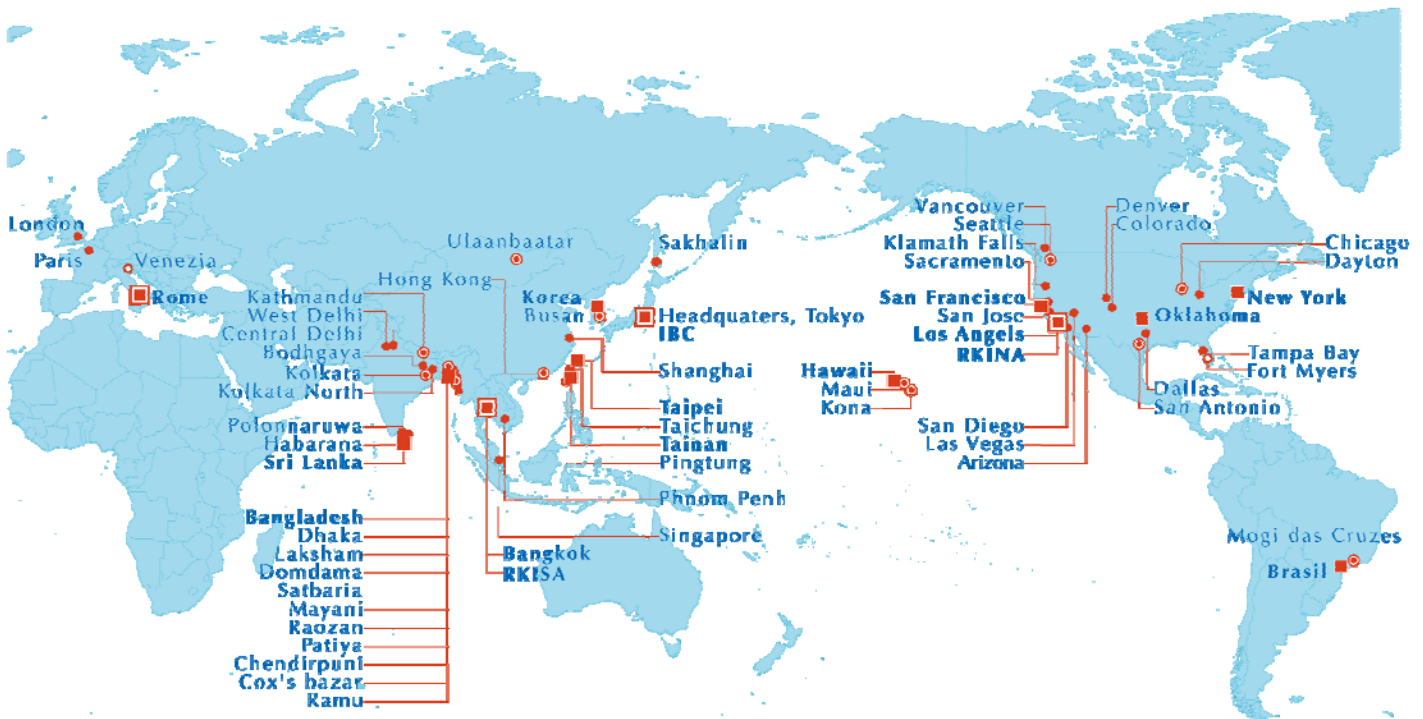
Living the



LOTUS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BRANCHES